

전문역량과 미래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서비스 향상

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7. 4. 24.(월) 10:00 (총 7 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담당자	과 담	장 담	최 담
			두 수	정	전화번호
					053-952-0366 070-7850-2223

3개월 전망(2017년 5월~7월)

[기 온] 평년보다 높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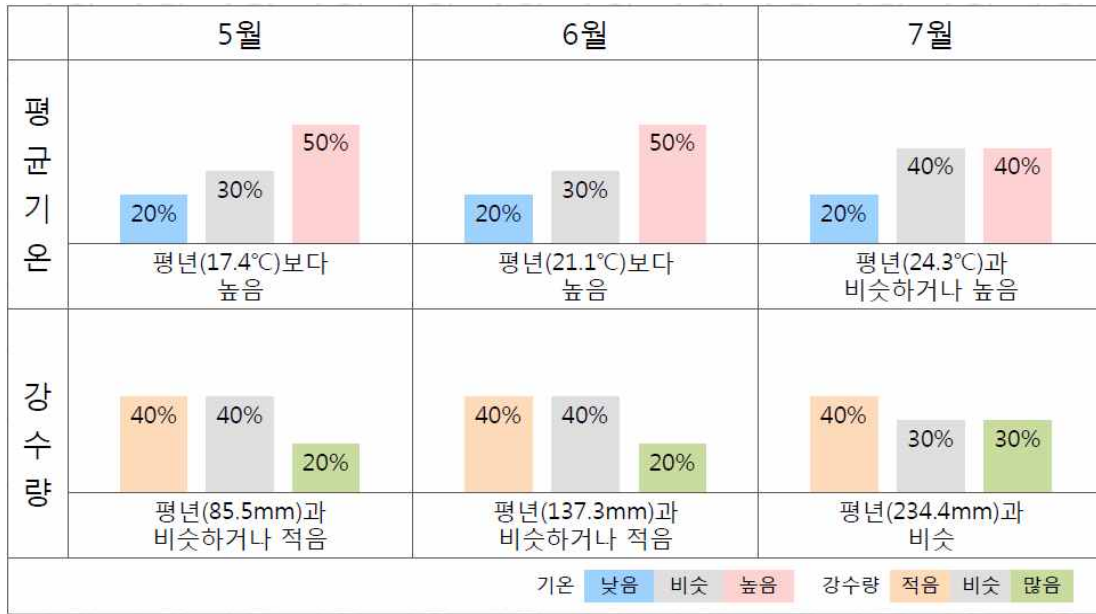
[강수량]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경향을 보이겠으며,
강수량의 지역 차이가 크겠음

- (5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따뜻한 남서류의 유입과 일사로 인해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있겠음.
(월평균기온) 평년보다 높겠음
(월강수량)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6월)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후반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월평균기온) 평년보다 높겠음
(월강수량)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7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거나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으며,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월평균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월강수량) 평년과 비슷하겠음
- (엘니뇨/라니냐)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가 점차 상승하여 하반기에는 엘니뇨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됨.

붙임 1

3개월 전망 요약

[3개월 전망(2017년 5월 ~ 7월) 요약]



※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평년값과 평년 비슷 범위 기준표

기간 \ 요소	5월		6월		7월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균기온	17.4°C	-0.2 ~ 0.2°C	21.1°C	-0.3 ~ 0.3°C	24.3°C	-0.5 ~ 0.5°C
강수량	85.5mm	90 ~ 110%	137.3	85 ~ 115%	234.4mm	90 ~ 110%

※확률예보 해석의 기준

확률(낮음(적음) : 비슷 : 높음(많음))	해설
높음(많음) 확률이 50%이상 (20:40:40)	평년보다 높음(많음)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많음)
비슷 확률이 50%이상 (40:30:30) (30:40:30) (30:30:40)	평년과 비슷
(40:40:20)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적음)
낮음(적음) 확률이 50%이상	평년보다 낮음(적음)

【알림】

- 3개월 전망은 "기상청 누리집→날씨→특보·예보→3개월 전망"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3개월 전망은 2017년 5월 23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2월

- 기온은 2.3℃로 평년(1.5℃)보다 높았으며(편차 +0.8℃), 강수량은 27.2mm로 평년(31.8mm)과 비슷하였음(평년비 90%).
- [기온] 이동성 고기압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 변화가 잦았음. 12월 후반~1월 전반을 포근하게 만들었던 기압계가 2월에도 나타나 기온이 두 차례(3~6일, 15~17일) 크게 올랐음. 9~12일에는 베링해 부근에 형성된 상층 기압능이 서진하면서 우리나라 동쪽으로 치우쳐 흐르던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유입되었으며, 바이칼호 부근에 형성된 상층 기압능으로부터의 찬 공기까지 더해져 한파가 발생하였음.
- [강수량]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건조하였으나, 22일에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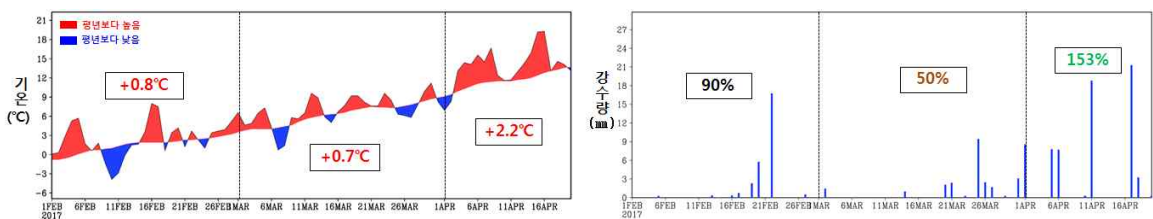
○ 3월

- 기온은 6.9℃로 평년(6.2℃)보다 높았으며(편차 +0.7℃), 강수량은 24.4mm로 평년(50.6mm)보다 적었음(평년비 48%).
- [기온] 이동성 고기압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났음. 6~8일에 베링해 부근에 상층기압능이 형성되면서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유입되어 쌀쌀하였으며, 이후에는 바이칼호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형성되면서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주기적으로 유입되어 기온 변화가 나타났음.
- [강수량]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음. 전반에는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았으며, 후반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 및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도 하였으나 그 양이 적어 건조하였음.

○ 4월 1일~20일

- 기온은 13.8℃로 평년(11.6℃)보다 높았으며(편차 +2.2℃), 강수량은 68.2mm로 평년(44.3mm)보다 많았음(평년비 153%).
- [기온] 주로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 또는 남동기류가 자주 유입되었고 일사에 의한 지면가열이 더해져 고온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 특히, 16일에는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내륙을 중심으로 30℃ 안팎의 고온현상이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였음.
- [강수량] 이동성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한 후 그 후면으로 저기압이 발달하여 우리나라를 자주 통과하면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음. 5~6일 및 17일에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으로 인해 비가 내렸으며, 11일에는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

○ (최근 3개월, 2017.2.1.~4.20) 평균기온은 7.0℃로 평년(5.9℃)보다 1.1℃ 높았으며, 강수량은 119.8mm로 평년(128.2mm)대비 94%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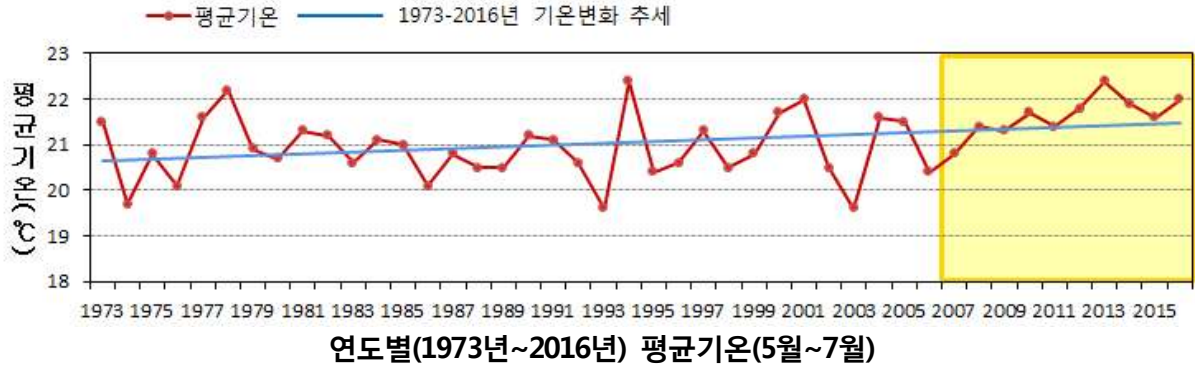
최근 3개월 평균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2017.2.1.~4.20.)

붙임 3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5월~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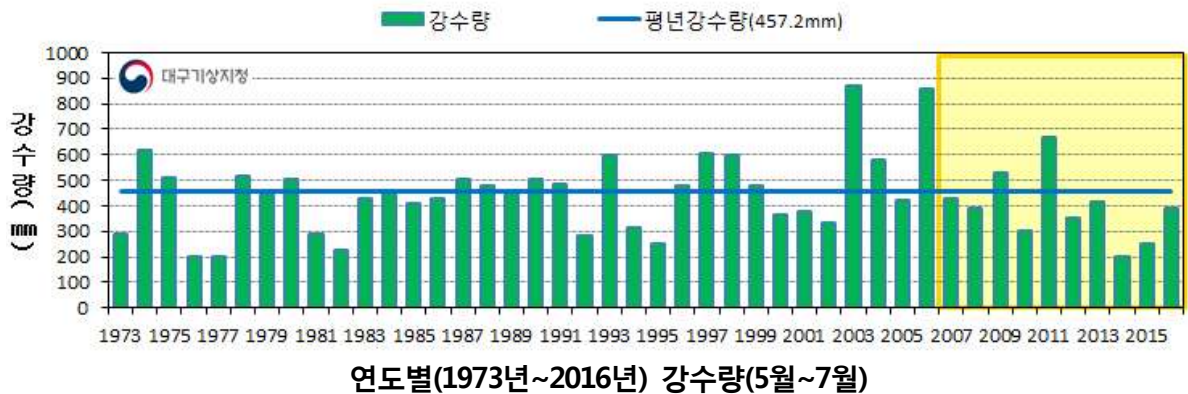
○ 기온

- 최근 10년(2007년~2016년) 평균기온은 21.6℃로 평년(20.9℃)보다 0.7℃ 높았음.



○ 강수량

- 최근 10년(2007년~2016년) 강수량은 392.2mm로 평년(457.2mm)대비 86%를 기록하였음.



○ 월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5월	6월	7월
평균기온(평년편차)	℃	18.2(+0.8)	21.7(+0.6)	25.0(+0.7)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24.7 / 12.0	27.1 / 17.0	29.7 / 21.4
강수량 / 강수일수	mm / 일	80.8 / 8.3	103.5 / 9.8	207.9 / 14.8
일조시간	시간	242.5	178.4	150.4
일최고기온 30℃ 이상 일수	일	3.2	7.6	15.9
일교차 10℃ 이상 일수	일	22.3	14.7	10.2
열대야일수(밤최저기온 25℃ 이상)	일	0.0	0.1	3.0

- ※ 대구·경북 자료는 9개 지점(대구, 포항,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구미, 영천) 평균임
- ※ 최근 10년 기간 : 2007년~2016년
- ※ 평년기간 : 1981년~2010년

○ **고온 현상**

－ **(2016년 6월)**

- 평균기온,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각각 최고 5위, 2위 기록하였음
(편차(°C) : 평균기온 +1.2, 평균 최저기온 +1.5)

－ **(2016년 5월)**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각각 최고 3위를 기록하였음
(편차(°C) : 평균기온 +1.3, 평균 최고기온 +1.9 / 일최저기온(°C) [5월 극값] : 27일 대구 21.3[4위], 영천 18.6[4위], 28일 상주 19.3[2위], 30일 구미 19.2[5위], 31일 영주 18.5[5위])
-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었고,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과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 **(2014년 5월 하순)**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
(편차(°C) : 평균기온 +2.2, 평균 최고기온 +4.5, 평균 최저기온 +2.2)
- 중순부터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었고, 낮에는 강한 일사가 더해져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 **(2012년 5월)**

-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최고 2위 기록하였음(편차(°C) : 평균 최저기온 +1.3)
- 고온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음

○ **저온 현상**

－ **(2014년 5월 3~9일)**

-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고, 6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
- 감차카반도 부근에서 발달한 상층 기압능의 영향으로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상층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

－ **(2010년 5월 하순)**

-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낮았음(편차(°C) : 평균 최고기온 -3.7)
- 오호츠크해고기압의 영향으로 저온 현상이 나타났음
- 동해 연안의 수온이 낮아져 어획량이 감소하였고, 고랭지 채소의 생산량이 감소하였음

－ **(2008년 5월 중순)**

-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네 번째로 낮았음
(편차(°C) : 평균 최저기온 -2.1 [1위 1981년 -2.8])
-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는 가운데, 상층의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
- 서리 발생으로 농작물이 냉해를 입었음

○ 건조 및 가뭄

－ (2012년 5~6월)

- 5월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이 자주 나타났고, 6월에는 오호츠크해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여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지 못해 장마시작이 늦어짐에 따라 강수량 부족이 장기간 지속되었음
- 농업용수 부족과 낙동강 하천에서 녹조피해가 발생하였음

○ 태풍

－ (2011년 6월 25~26일)

-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

－ (2006년 7월 9~29일)

- 지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산사태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일강수량(mm) : 10일 상주 117.0, 16일 의성 164.0 등)
- 제3~4호 태풍 '에위니아'와 '빌리스',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았음

○ 황사

－ (2011년 5월 1~4일)

- 전국적으로 매우 짙은 황사가 관측되었음
- 내몽골에서 발원하여 황토고원과 산둥반도를 지나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음
- 공기청정기의 판매가 증가하였음

－ (2008년 5월 29~31일)

-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기압계의 느린 흐름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져 전국에서 황사가 관측되었음